

월요광장



노 경 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관람객 1300만 명이 다녀갔던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상황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다. 부정 선거와 자유민주주의의 국체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중북 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담화문을 보면 정부 문서라기보다는 거의 시정잡배의 막말 수준이다. 45년 전 전두환 쿠데타 세력들의 논리는 물론 표현까지 흡사하다.

평화롭기만 했던 서울의 밤하늘에 군 헬기를 띄우고 무장 군인을 국회에 투입했다. 이 시대착오적인 계엄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국가신뢰도와 국가경제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국민들은 혹 44년 전 광주처럼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TV 생중계를 지켜보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 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다시 본다

는 하야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결정적 요건을 계엄선포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완전히 충족시켜 준 것 같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관위원장, 심지어 이재명 대표에 무죄 판결한 판사까지 체포하려고 하였다.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서 공격을 유도하려 한 사전 모의도 확인되었다. 초기에는 허술한 졸판 알았던 비상계엄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보다 치밀하게 준비되어 추진된 정황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조만간 만천하에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빈대만 잡을 수만 있다면 초가삼간 태워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는 계엄 대통령을 보면서 15세기말 이탈리아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제시하는 군주의 모습을 다시 살펴볼까 된다.

"거짓말, 혼란 야기, 공포감 조성 등을 적절히 구사하면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인간은 다양하게 대해주든지 아니면 아주 짓밟아 몽개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소한 피해에는 보복하려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는 복수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망설이기 때문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리할 땐, 약속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 군주는 능숙한 거짓말쟁이여 한다. 결단력이 없는 군주는 당면한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대부분 중립적 길을 따르다 몰락한다."

'군주론'에 대해 두 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있다. 첫째는 군주를 부정적으로 보는 접근으로 프랑스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이었던 이노상 장티에(1535-1588)는 '군주론'에 담긴 정치사상을 비판하며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마키아벨리즘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정치술의 대명사가 되었다. 또한 역사 속 여러 독재자들에게는 바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사자와 여우의 양면을 갖는 군주의 실체를 인식해가는 민중 교육적 시각이다. 루소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통하여 군주가 민중의 진정한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을 기정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파악한다. 루소는 "마키아벨리는 군주들을 혼계하듯이 하면서 사실은 인민을 가르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바로 이런 마키아벨리의 반어적 표현방법을 '퐁자'라고 하면서, 이런 퐁자가 나타난 '군주론'을 '공화주의자의 교과서'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정치가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즘'을 배우겠지만, 대통령을 뽑는 백성들은 군주론에서 군주의 냉정한 본성을 철저히 숙득해 쉽게 속는 일이 없어야겠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잘못 뽑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에게 참으로 슬프고 불행한 일이 또 발생하교야 말았으니 작작하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시작될 지 보름이 되어간다. 이즈음을 좀 더 경건하고 성스럽게 보내야 하는데 무겁게 내려앉기만 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숨소리는 거칠고 입은 자꾸 험악해지고 가슴은 더 답답해져서 뭐 마려운 개처럼 안절부절못한다. 전에 없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불안하고 뒤통수하다. 이게 대체 무슨 까닭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네모'들(텔레비전과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추궁해볼 수밖에 없다. 요즘 들어 부쩍 보는 시간이 늘어난 텔레비전도, 늘 옆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도 내 삶을 크게 확장해 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내 삶을 크게 방해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저들은 아무 말도 없이 내내 침묵하고 있다거도, 살짝 아는 척이라도 좀 했다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혼을 쏙 빼놓는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것인 줄 모르지 않으나 건성건성 흘려듣기 일쑤인데, 그런 건 하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다.

세상 온갖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자 하는 '네모'들의 일말에 나도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이다 그 안에 있으니. 그곳에서 길을 찾고 시간을 보

우리 함께 평화를

내고 뭉가를 만들어내기도 하나. 재미도 있고, 새롭게 배울 점도 있고, 그리고 제법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할 때도 많으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삶은 이미 그에 기반해 있으니. 모든 연결의 끈이 거기에 있으니.

문제는 저 처첩한 성채를 둘러싼 오리무중인 이야기다. 시대극이라고 해야 할까, 난투극이라고 해야 할까.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전무후무한 이야기를 속수무책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 도무지 수긍할 수 없는 허접한 인물들과 그들이 벌이는 참담한 이야기를 중계방송 하듯이 숨기쁘게 내보내는 것이다. TV를 보다가 스마트폰을 뒤졌다가 울분을 토했다가, 연말연시를 다 허비하게 하는 것이다. 글이라도 써보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또 하릴없이 뉴스를 기웃거리게 하는, 한사코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달포 전, 한밤중에 뜬금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하드웨어 온 나라가 속대밭이 될 뻔했다. 극적으로 무산되기는 했으나 격한 후폭풍에 시달리며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상태. 그 와중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항공기가 추락해 수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됐다. 희생된 사람들은 모두 이 땅의 잠상이사 우리의 이웃이었다. 서로서도 가족이고 친구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지니고 온 모처럼의 추억은 산산이 부서져 허공 중에 흩어졌고, 세상은 삼시간에 격한 슬픔으로 뒤덮였다.

격한 분노, 격한 슬픔, 격한 충동, 격한 저항... 세상이 온통 격한 것들로 차 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세상은 다시 아수라장이다. 온갖 아수라들

이 모여서 또 다른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다. 힘과 권력, 돈과 욕망, 부정과 부패, 폭력과 야만, 혼돈과 파괴, 온갖 부조리로 얼룩진 아수라의 시대는 신화 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상난 그들은 먼먼 시간의 머신을 타고 내려와 지금 여기, 우리를 점령해 버렸다. 회귀한 아수라들이 음산하게 떠돌고 있는 여기, 이 아수라장, 우리가 사는 세상.

모두가 불면의 밤을 앓고 있다. 안 보고 안 들으면 그만이지지만 눈앞의 현실이니 그럴 수도 없다. 사방이 '네모' 천지이다 어딜 가나 그 얘기뿐이니 피하기도 쉽지 않다. 아예 눈 감고 귀 막은 채 독야정청 산다면 모를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텔레비전이 스마트폰이 무슨 죄가 있는가. 종로에서 뻘 맛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꼴이다. '네모'들은 다만 보여주고 들려주며 제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공연히 애민 탓을 하는 거다. 울분을 토하고 슬픔에 잠기고 다시 접속하는 일은 온전히 내 몫인 따름, 누구도 강요한 것이 아닌데 말이다.

지금은 깊은 밤, 어디선가 새벽닭이 우는 시간이다. 텔레비전은 잠들어 있고 스마트폰도 쉬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만 하얗게 밝아 있다. 백색의 모니터 위에 천천히 까만 글자들이 박히는 중, 문득 창밖으로 어른거리는 게 있다. 눈이다! 눈이 오고 있다. 아무 탄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펄펄 오고 있다. 이 시간만큼은 착실하게 평화롭다. 모든 격한 것들이 가라앉고 철없이 몰아치던 바람도 잠잠하다. 득실거리던 아수라도 놀라 달아나고, 너와 나의 슬픔도 포근히 덮일듯싶다.

고요한, 흰 아침에는 우리 함께 평화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社說

의정 갈등 새국면...정부·의료계 대화 서둘러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대 정원 재검토 의사를 보이면서 이번 의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한 만큼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정부의 사과는 전공의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부분이며, 의료계의 태도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사회 분야 부처 업무 보고에서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했을 교수님과의대생 여러분에게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을 위해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 중 '전공의 등 미복귀 시 처단'이라는 표현에 대해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 상처받은 전공의와 의료진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힌 점도 긍정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의료계 내 강경파가 선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계에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화론'이 힘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내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하루빨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장관의 사과, 의사협회 새 회장의 선출을 계기로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지역 공동체 공감한 '차없는 금남로' 성공하길

호남의 심장이자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금남로가 '차 없는 거리'로 탈바꿈한다. 5·18의 역사적 현장이자 80년 당시 지역민들의 해방구였던 금남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 오월 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논의는 20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는 환경정책의 시범사업으로 금남로 전역에 차량 통행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됐었다.

하지만 침체한 광주 중심(충장·금남) 상권 탓에 검토만 했지 어느 누구도 실행하지 않는 거리 사업을 도입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동안은 오직 5·18행사나 충장로축제, 집회 등이 열릴 때만 간헐적으로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이번에 추진되는 '차 없는 거리'는 공식 사업으로는 최초이다.

광주시 동구는 최근 오는 3월-12월 한 달에 한 차례(첫주 월요일)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금남로공원에서 전일발당

245까지 540m 도로의 차량 통행을 차단하는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량 통행이 차단된 금남로는 도심 속 일상의 삶과 소통이 있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특히 금남로를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면서도 친환경요소를 적극 반영해 탄소중립 실현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동구의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무엇보다 불경기에 상권 축소가 우려될 텐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해준 지역 상인들의 양보심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3월부터 시행이니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동구는 이번 차 없는 거리 사업으로 자칫 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또한 차 없는 거리 공간과 충장로, 예술의 거리 상권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無等鼓

박종규와 차지철 경호실장은 역대 대통령 호위무사 가운데 유독 주목을 끌었다. 국가원수 경호라는 본연 업무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무한 신임을 토대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1961년 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소장의 경호를 맡았다.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되는 1960년 5월 18일 사진에 등장한다. 선글라스를 낀 박 장군의 왼쪽이 박종규 소령, 공수특전단 군복을 입고 수류탄을 차고 있는 오른쪽은 차지철 대위다.

무려 10여 년 박정희 대통령을 지켰던 박종규 경호실장들은 항상 권총을 소지해 '피스트롤 박사(박)'으로 불렸다. 그는 1974년 8·15 문세광 저격사건으로 육영수 영부인이 숨지자 좌천됐다. 박 실장의 후임이 차지철 경호실장이다. 그는 영부인 경호실패를 거울삼아 군과 경찰을 경호에 대거 투입했다. 군과 경찰로 구성된 5개 작전부대를 운용하기 시작한 게 이 무렵이다. 차 실장은 경호임무로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1979년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손목을 맞고 화장실로 도망했다. 대통령을 그 자리에 두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에 달아났고, 경호의 기본인 총기 휴대 등 무장도 하지 않았다.

'전두환의 심복' 장세동 경호실장은 1981년 취임해 이른바 각하의 심기(心氣) 경호를 내세웠다. 대통령 마음까지 헤아리는 경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경호철학이다. 대통령 경호실법을 개정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임무도 신설했다. 전두환의 퇴임 이후까지도 챙긴 셈인데, 지금까지 이어지는 퇴임 대통령 경호의 시작이다.

대통령 경호실에서 격하된 경호처를 이끌고 있는 박종준 처장이 특수공로 불렸다. 그는 1974년 8·15 문세광 저격사건으로 육영수 영부인이 숨지자 좌천됐다. 박 실장의 후임이 차지철 경호실장이다. 그는 영부인 경호실패를 거울삼아 군과 경찰을 경호에 대거 투입했다. 군과 경찰로 구성된 5개 작전부대를 운용하기 시작한 게 이 무렵이다. 차 실장은 경호임무로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1979년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손목을 맞고 화장실로 도망했다. 대통령을 그 자리에 두고 목숨을 연명하기

경호실장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 고



최혜지
아르플래닛 대표

예술은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 구성원들의 정서와 문화를 발전시킨다. 그러나 지방에서 예술 활동을 펼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도권과 달리 지역에서는 예술을 위한 자원은 물론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직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은 실무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며, 예술 가치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역을 오가며 이 같은 문제를 경험하면서 공연 기획자로 활동을 시작했고,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래식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며 광주를 기반으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지역 내에서는 연주 기회가 흔치 않았다. 이로 인해 수도권으로 나가 공연한 경험이 많다. 특히 연고지가 없는 수도권 무대를 펼쳐 지역 예술가로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다.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어려움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동기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

지역 예술가와 관객을 잇는 클래식 무대

다. 동료들조차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찾아 학부 졸업 이후 대학원을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지역을 떠나 서울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 예술 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도태되어 있다는 현실이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조차도 지방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기회가 제한적이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과정도 어려운 구조다. 특히 클래식 음악의 경우, 티켓싸워가 있는 유명 클래식 아티스트를 제외하면 일반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가뜰이나 예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클래식 음악은 진입장벽이 높은 예술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관객층 확대에 봉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는 작년부터 공연 기획자로서 개인 프로젝트와 예술 단체인 아르플래닛의 활동을 병행하며 두 개의 축으로 나눠 활동을 시작했다. 두 프로젝트 모두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목표로 했고,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 공연을 무료로 진행했다. 무료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클래식 장벽을 낮추고, 공연장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었다. 대부분의 공연을 각각 독특한 테마를 중심으로 기획, 관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잊혀진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기획 '리멤버 아티스트'를 필두로 ACC '창단연주회', '조인트 리사이틀' 등 다양한 기획을 선보였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총 10개의 공연을 기획했으며 1500여명 이상 관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중 가장 주목받은 공연은 지역 청년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인상주의 음악과 지역 청년작가의 편안한 색채감을 결합한 '색채의 멜로디'였다. 공연 중에는 빔프로젝터를 활용해 작가의 작품을 무대 위에 투사하여 음악과 시각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 공연은 음악과 미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식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나는 아르플래닛을 창단하며 지방 예술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아르플래닛은 단순히 공연을 기획하는 단체를 넘어 '예술가와 관객이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지방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클래식 음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아르플래닛의 대표이자 공연 기획자로서 광주 지역의 클래식 음악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복안이다. 클래식 음악은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음악의 힘을 지역 사회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예술 분야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기획하고 싶다.

광주·전남의 클래식 음악이 더욱 활성화되고, 누구나 클래식을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고대한다. 나 또한 그 여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역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려 한다.